

# 다니엘서 - 번호 57

요한계시록의 예언적 비밀을 밝히다: 종말 예언 속으로의 여정

Jeff Pippenger

2024-01-21

모든 선지자들은 세상의 종말을 말하며, 모든 예언은 요한계시록에서 서로 만나 끝을 맺는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니엘서와 같은 맥락이 이어지는데, 이는 두 책이 같은 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예언의 원칙들은 앞선 글들에 확고히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은혜의 시기가 마치고 직전에 봉함되었다가 풀리는 예언이 있음을 알려 준다. 이 글들은 지금 풀려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기별과 연결된 예언적 요소들을 제시해 왔다. 그 기별은 단일한 예언적 진리가 아니며, 지금 풀려지고 있는 그 기별의 모든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범주에 속한다.

그 메시지는 “때가 가까웠다”고 할 때, 곧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린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영의 저술에서 주어진 해설과 더불어, 예언적 메시지의 봉인이 풀리는 과정에 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한다. 봉인을 여시는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그렇게 하실 때 메시지를 제시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식을 사용하신다. 그는 일곱 인으로 봉해진 성경을 들고 계시는 것으로 묘사되는 아버지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으신다. 다윗의 뿌리이시며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시기도 한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아버지에게서 그 책을 취하여 인들을 떼신다.

그런 다음 예수는 그 메시지를 가브리엘에게 주고, 가브리엘은 다른 천사들과 함께 그 메시지를 선지자에게 전하며, 그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기록하여 교회들에게 보낸다. 예언적 메시지의 봉인을 풀 때가 임하면, 그 메시지의 개봉은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을 불러오며, 그 시험은 선지자의 글의 대상인 교회 안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그 교인들 각자의 반응에 따라 그들이 두 부류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가 결정된다. 봉인이 풀린 메시지가 낳은 지식의 증가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로 불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니엘에 의해 “악한 자들”, 마태에 의해 “어리석은 자들”로 불린다.

최후의 예언적 비밀의 봉인 해제와 관련된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다루어지고 강조된다. 이는 그 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가운데 예배자들을 두 부류로 시험할 한 요소를 지목하기 때문이다. 그 절은 경고 신호 다음에 이어지는 메시지를 이해할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임을 밝혀 그렇게 한다.

여기에 지혜 있는 뜻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 있으니,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이를 때에는 반드시 잠시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그 짐승은 곧 여덟째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17:9-11.

“지혜가 있는 마음”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의 증가를 이해하며, 지혜로운 자들이 이해하고 악인들이 거부할 진리를 식별하는 예언적 표지 바로 다음에 제시되는 그 지식의 증가는, 이어지는 구절들에 제시된 성경 예언의 왕국들과

관련된 진리이다. 그 구절들은 성경 예언의 왕국들에 대한 마지막 묘사이며, 마지막 때에 봉인이 풀리는 것은 그 여덟 왕국이 다니엘서 2장에서 성경 예언의 왕국들을 처음으로 묘사한 곳에도 또한 나타나 있었다는 사실이다.

진리의 계시는 밀러의 보석들 가운데 하나를 이루었던 성경 예언의 왕국들에 대한 그 제한된 관점을 지지하지만, 그 계시는 열 배 더 밝게 빛났다. 왜냐하면 그것은 밀러파가 그들의 제한된 역사적 시점에서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숫자 '열'이 상징하듯 시험을 의미하며, '여기 지혜 있는 마음이 있으니'라는 도입부의 경고라는 봉화에 의해서도 그렇게 드러난다. 예언적으로 해석하면, 뒤따르는 진리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려 전해질 그 기별의 대상이 되는 교회들을 시험할 것이라는 뜻이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요한은 교황권의 암흑기 1,260년의 광야로 이끌려 갔다. 그는 그 기간의 맨 끝인 1798년에 놓였는데, 이는 그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놓였던 것과 동일한 역사이다.

나는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서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고, 그 뿔들 위에는 열 개의관이 있었으며, 그 머리들 위에는 모독의 이름이 있었다. 요한계시록 13:1.

"바다의 모래"는 1798년을 가리킨다. 이는 그 표현이 요한이 바다의 짐승인 교황권을 과거 시제로 보았고, 땅의 짐승인 미국이 올라오는 것과, 곧 임할 일요일 법령에서 결국 용처럼 말하게 될 것을 보았던 역사적 시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때 땅의 짐승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짐승의 우상"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며, 그 우상은 말하고 전 세계에 일요일 법령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교황권이 힘을 빼앗겨 박해를 중지하도록 강요받았을 때, 요한은 용의 음성을 메아리치고 동일한 잔혹하고 신성모독적인 일을 계속해 나갈 새로운 권세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교회와 하나님의 율법에 맞서 마지막으로 전쟁을 벌일 이 권세는 어린양 같은 뿔을 가진 짐승으로 표상되어 있다. 그 이전의 짐승들은 바다에서 올라왔으나, 이것은 땅에서 올라왔는데, 이는 그것이 상징하는 나라, 곧 미국의 평화로운 등장을 나타낸다. 시대의 징조, 1910년 2월 8일.

요한은 같은 역사적 조망점으로 이끌려, 십칠 장에서 성경 예언의 왕국들에 대한 최종적인 제시를 받는다. 그 조망점에 서 있는 가운데 왕국들이 제시된다. 그는 먼저 그 짐승이 교회와 국가를 모두 통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는 그녀가 일곱 머리뿐 아니라 일곱 산 위에도 앉아 있기 때문이다. 큰 음녀가 앉아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자임을 드러내며, 짐승을 타는 자가 곧 그 짐승을 통제하는 자이다.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그 큰 성이다. 요한계시록 17:18.

"reigneth"라는 단어는 쥐고 다스린다는 뜻이다. 기수는 고삐를 줌으로써 짐승을 다스린다. 교황권은 일곱 머리와 또한 일곱 산을 다스린다.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가 금의 "머리"라고 말한다. 이사야서 7장에서는 "머리"가 왕, 수도 또는 왕국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육십오 년 안에  
에브라임이 무너져 더 이상 민족이 아니게 되리라.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야의 아들이니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7, 8.

교황권, 곧 짐승을 탄 여자는 땅의 모든 왕들을 다스린다. 그 왕들은 말세의 용의 세력인  
'열 왕'으로 표현된다. 그들은 두로의 음녀가 음행하는 왕들이다. 그 '열 왕'은 교황권의  
권위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되어 왔지만, 그 열 왕들 가운데 으뜸 되는 왕은 미국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이스라엘의 북쪽 열 왕국의 왕 아합으로도 상징된다. 숫자 '일곱'은  
'완전'을 뜻하며, 교황권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묘사될 때 그녀는 또한 그 열  
왕들을 다스리고 일곱 머리 위에 앉아 있다.

지혜 있는 마음이 여기 있으니, 마지막 때의 지혜로운 자들은 'line upon line'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하며, 그 음녀가 지배하는 통치 체제의 각각의 상징이 동일한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아본다. 그녀는 또한 일곱 산을 지배하는데, 밀러주의자들은 성경  
예언에서 '산'을 왕국의 상징으로 보았고, 또한 상징에는 하나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인정했다.

산은 또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 성경에서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집이 있는 산이 산들의 정상 위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보다 높임을 받을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리로 흘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을 따라 행하리라. 이는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사야 2:1-3.

“주님의 집”은 그분의 교회이며, 또한 그것은 “산”이다. 큰 음녀가 일곱 산 위에 앉아  
있으니, 그녀가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모든 교회들을 다스린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녀는 온 세상의 모든 교회와 모든 국가를 장악하고 있다.

이사야가 자신에게 임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이라고 밝히는 그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인용한 대로 계속 이어지며, 4장에서도 여전히 같은 본문이다. 그리고 이사야에  
따르면 바로 그 ‘같은 날’에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라고 말한다. 바로 그 같은 시기에 ‘일곱 여인’이 언급된다.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의복을 입으리니, 다만 우리의 치욕을 제하려 하오니 당신의 이름으로만 우리를  
불리게 하소서’ 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스라엘에서 피한 자들을 위하여 땅의 소산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되리라. 시온에  
남은 자와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살아 있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이는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 때에  
그렇게 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시온 산의 모든 거처와 그 모임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타오르는 불꽃의 광채를 지으시리니, 모든 영광 위에 덮개가

있을 것이라. 또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들이 되며 피난처가 되며 폭풍과 비를 피하는 은신처가 되는 장막이 있으리라. 이사야 4:1-6.

이사야의 환상의 주제가 되는 "그 날"은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의 "그 시각"이다. 2020년 7월 18일의 실망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권고를 받아들이고 레위기 26장의 요건을 충족했으며 에스겔의 첫 예언으로 함께 모아진 지혜로운 자들은, 이슬람의 네 바람에 대한 에스겔의 둘째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인침을 받는다. 그들은 이어 하늘로 들어 올려져 하나의 기치가 되고,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은 지진에서 시작되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에 응답하기 시작한다. 그 지진은 곧 임박한 일요일 법령이다. 하나님의 다른 양 떼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선포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 '때'에 큰 음녀가 자기 노래들을 부르기 시작하고 땅의 왕들과 음행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음녀를 따르며, 그들의 교회들은 그 음녀의 권세 아래 들어간다. 이사야는 그 교회들을 '일곱 여자'로 묘사한다. 그 '일곱 여자'는 교황권이 다스리게 될 '일곱 산'이며, 미국이 온 세계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도록 강요하는 가운데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우상은 말을 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교황권의 표를 받게 할 것이다.

그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으리라" 할 때의 그 "남자"는 바울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지칭한 바로 그 "남자"다. 그 시험의 때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은 다 거룩하다, 곧 예루살렘에서 살아 있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기간 동안 이름이 생명책, 곧 창세로부터 죽임 당하신 어린양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반면에 "불법의 사람"을 붙잡는 다른 부류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불법의 사람을 경배하는 자들이다.

땅에 사는 모든 자들, 곧 세상 기초가 놓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를 경배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13:8, 9.

큰 지진의 '한 시간', 곧 일요일 법령 위기는 조사 심판의 종결이며, 그 심판은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는지, 아니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발견되는지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생명책과의 관계로 대표되는 두 부류가 심판의 바로 마지막 장면들을 드러낸다. '불법의 사람'을 붙드는 자들은 '자기 떡을 먹고 자기 옷을 입겠다'고 선포하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소원은 '네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적 신앙고백(자기 떡을 먹음)을 유지하고, 교단적 표방(자기 옷을 입음)도 유지하겠지만, "죄의 사람"의 이름은 받아들일 것이다. "죄의 사람"의 이름은 "가톨릭"이며, 이는 "보편적"을 의미한다. "죄의 사람"을 붙드는 자들은 "보편적 교회", 즉 가톨릭 교회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 그들은 자신의 "수치"를 "제거"하기 위해 그런 관계를 원한다.

그 '책망'은 마지막 때에 모든 교회와 모든 민족 위에 균림하는 짐승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다룬다.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의 때'에 '셋째 화가 속히 임한다'. '셋째 화'는 이슬람이다.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의 때'에 일곱째 나팔이 분다. 일곱째 나팔은

이슬람이다. 모든 나팔은 세계 역사 전반에 걸쳐 강제된 일요일 예배에 대한 심판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예언적 도구들이기 때문에, 이슬람은 '큰 지진의 때'에 타격한다.

머지않아 시행될 일요일 법령으로 미국의 "국가적 파멸"이 초래될 때, "나라들이 분노할 것이다." 성경 예언에서 나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슬람이며, 이는 창세기에서 이슬람에 대한 최초의 언급으로 나타나 있다.

여호와와 사자가 그 여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장차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그의 모든 형제의 면전에서 거하리라. 창세기 16:11, 12.

마지막 날들의 '오명'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다. 세계의 교회들과 국가들은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는 유엔의 신세계 질서의 권위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콘스탄티누스가 330년에 교황권에 그 지위를 부여했던 것처럼, 교황은 단일 세계 체제 위에 좌정하게 될 것이다. 국가들은 이슬람이 인류에게 가하는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연합된 노력으로만 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며, 이는 어떤 도덕적 권위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그 권위가 로마 교회라고 주장할 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가 533년에 가톨릭 교회에 막강한 권위를 부여했던 것처럼, 역사는 반복된다. 미국은 496년에 클로비스가 가톨릭 교회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군사력을 통해 세계가 복종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았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계시록 13:2

우상이 세워지고 나면, 이슬람의 공격에 분노해 온 땅의 왕들은 전 세계적인 짐승의 우상이 출현하도록 이용된 이슬람을 향한 보편적 '비난'이 사실 '죄의 사람'(이세벨)이 실제로 관심을 두고 있던 '비난'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무 늦은 뒤에야, 세상은 이세벨이 이슬람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히려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처럼 그녀의 마음이 엘리야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혜 있는 마음"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며, "지혜로운 자"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인을 풀 때 생겨나는 "지식의 증가"를 깨닫는 사람들이다.

또 그가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0, 11.

"일곱 머리는 여자가 그 위에 앉아 있는 일곱 산이다"라는 말은 교황권이 교회와 국가 모두를 다스릴 것이라는 진리를 나타낸다. 상징은 하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상징은 그것들이 제시된 본문의 문맥에 의해 규정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해당 절이 머리들이 곧 산들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머리(정치권력)와 산(교권) 사이에 구별을 두는 근거는 무엇이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 구별은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 확립된다. 7장에서는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가 모두 그들보다 앞선 짐승들과는 "다른" 것으로 규정된다.

7장을 8장 위에 겹쳐 놓아(줄에 줄을 맞대어) 보면, 8장에서 로마의 작은 뿌리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사이를 오간다는 것을 발견한다. 하나의 상징(작은 뿌리)이 두 권세를 대표한다. 그 장들에서 뿌은 왕국을 뜻하고, 왕국은 또한 머리이기도 하다. 8장에서 작은 뿌은 두 왕국, 곧 성경 예언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왕국을 나타낸다. 작은 뿌은 상징적으로 두 왕국을 나타내며, 그것이 가리키는 두 왕국은 정치권력과 교권의 결합을 드러내는 왕국들이다. 또한 일곱 머리, 곧 일곱 산은 두 왕국을 나타내며, 하나는 교권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권력이다.

다니엘 2장에는 이 예언적 상징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이 있다. 거기서 밀러주의자들이 로마의 넷째 왕국으로 이해했던 마지막 왕국은 철과 진흙으로 표현된다. 철과 진흙은 함께 있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 철은 진흙과 섞이지 않는다. 그런데 화이트 자매는 '철과 진흙'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교권과 정권의 상징으로 본다. 이는 8장의 작은 뿌과, 산들이기도 한 요한계시록 17장의 머리들이 보여 주는 바와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 철과 질퍽한 진흙이 섞인 형상의 발로 표상되는 때에 이르렀다. 하나님께는 택하신 백성, 곧 분별력이 거룩하게 되어야 하며 기초 위에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를 올려놓음으로써 속되게 되어서는 안 되는 백성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모든 영혼은 우리 믿음을 구별하게 하는 특징이 일곱째 날 안식일임을 보게 될 것이다. 정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안식일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굳게 서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진 믿음을 옹호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거짓 안식일을 옹호하고, 교황권의 산물인 이 준수와 그들의 종교적 신앙을 뒤섞어, 주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며 사람으로 거룩히 지키도록 구별하시고 그분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천대에 이르는 표징으로 삼으신 그 안식일 위에 그것을 올려놓을 것이다. 교권과 정권의 뒤섞임은 철과 진흙으로 표상된다. 이 연합은 모든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 국가의 권세를 교회에 입혀 주는 일은 악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지나버렸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정치에 쏟아붓고 교황권과 연합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만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가 올 것이며, 그들의 악한 일은 그들 자신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제4권, 1168, 1169.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우리의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과 우리를 대적하여 사탄이 집요하게 고발하는 장면에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을 위하여 간구한다. 동시에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큰 죄인들로 고발하고, 평생 동안 그들을 유혹하여 짓게 한 죄의 목록을 하나님 앞에 내밀며,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을 자신에게 넘겨 멸하게 하라고 요구한다. 그는 또한 악의 연합에 맞서 섬기는 천사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라고 주장한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과 한데 묶어 자신에게 완전한 충성을 바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왕들과 통치자들과 관원들은 스스로 적그리스도의 낙인을 찍었고, 성도들(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 전쟁하러 가는 용으로 묘사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적대감 속에서, 그리스도 대신 바라바를 선택한 죄가 또한 자기들에게 있음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과 송사하실 일이 있으시다. 심판이 열리고 책들이 펼쳐질 때, 그분께서는 결산하실 매우 엄중한 일을 가지고 계신데,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과 속임수에 눈이 멀고 현혹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지금이라도 세상을 두렵게 하여 떨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의 죽음에 대하여 세상에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분의 백성을 박해함으로써 세상은 사실상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공연한 수치에 빠뜨렸다. 세상은 그분의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거절했으며, 선지자와 사도와 사자들의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그분의 기별을 거부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동역해 온 자들을 거절했고, 이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38, 39.